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6)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6 (2)96사단 주둔지-(15)물장오리
"신성한 오름이 日 군사요새로"

입력 : 2007. 08.09. 00:00:00



▲사진 위로부터 취재팀이 물장오리 서사면에
구축된 갱도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물장오리 서
사면에 구축된 갱도 입구. 물장오리 분화구 남동
사면에서 찾아낸 갱도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산정화구호·오름사면에 갯도 구축

실태파악·성격규명 위한 조사 필요

제주섬 개벽여신인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깃든 물장오리(물장울·水長兀)도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日) 본토 사수를 위해 미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던 일본군은 물장오리에까지 갯도진지를 구축, 60여 년이 흐른 현재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물장오리(제주시 봉개동 산 78-2 소재·표고 937m)는 한라산·오백나한과 함께 제주민들이 신성시해온 3대성산(聖山) 가운데 하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곳 성소(聖所)에까지 마구잡이로 헤집고 갯도진지를 구축했다. 그 아픈 역사흔적은 물장오리 정상부 분화구 바깥사면에 은밀히 감춰져 있다.

특별취재팀이 물장오리 남동사면 해발 922m 지점에서 확인한 갯도는 20여m 길이의 직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갯도 입구는 오름사면의 표토층이 쓸려내리면서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겨우 내부(폭 120cm, 높이 210cm)로 진입하자 입구에서부터 갯도 끝까지 벽면에 갯목(버팀목)을 댄 흔적이 일정 간격으로 뚜렷하게 패여 있다. 또 바닥에는 갯목 잔해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갯도 바닥에서는 철못과 꺾쇠 등이 여러 개 떨어져 있다. 이 갯도는 규모는 작지만 완성도 높은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갯도는 분화구 반대편 사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물장오리 분화구 바깥쪽 서사면에 위치한 갯도는 10m 크기 직선형으로 소규모다. 길이만 약간 짧을 뿐 남동사면의 갯도와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물장오리를 끼고 흐르는 계곡인 천미천 줄기 인근에서도 소규모 갯도가 확인된다. 또한 입구가 무너진 갯도 흔적과 계곡을 따라 평탄지형을 구축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무너진 정도로 볼 때 갯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민들이 신성시했던 물장오리에는 어떤 일본군부대가 주둔하고 갯도를 구축했을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를 보면 물장오리와 이웃한 견월악 일대는 북곽진지로 나타난다. 물장오리에서 견월악 정상부까지는 직선으로 2km 남짓이다. 하나의 북곽진지대로 묶을 수 있는 범위다.

일본군 96사단 및 292연대 주둔지인 산천단 및 삼의악과는 5km 거리다. 열안지오름까지는 8km, 어승생악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다. 산천단과 삼의악 일대에 보병 및 포병부대, 기마부대, 야전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물장오리 역시 주요한 주둔지 역할을 했다. 더욱이 물장오리는 한라산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데다 수량이 풍부한 이점까지 지니고 있어 최후의 저항요새로서 여건은 충분히 갖춰놓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다 제주시 동부권인 명

도암 일대에 주둔했던 96사단 예하 293연대와와의 연관성도 주목된다.

강순원 연구원(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제58군배비개견도 상으로는 견월악 일대의 복곽진지대가 불명확하지만 현재 발견되는 진지의 구조나 규모, 내륙부라는 지형적 위치 등을 볼 때 주저항진지의 역할보다는 1차 방어에 실패할 경우 2차 또는 최후의 저항을 위한 시설들이 구축되었던 지역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강 연구원은 "이 경우 배치부대의 위치상 산천단과 삼의악 일대에 주둔했던 제96사단 보병 제292연대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보병 제292, 293연대의 지원부대들인 통신대, 제3독립작정소대, 야전병원과 포부대 등의 배치 가능성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물장오리는 제주도 중앙부에 주둔했던 일본군 실체를 규명해줄 수 있는 핵심공간이지만 여지껏 실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비롯한 제주도 전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통한 성격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물장오리 일대 종합조사대책 시급

물장오리는 정상부에 연중 마르지 않는 산정화구호로 유명하다. 화구호는 설문대할망이 빠져죽었다고 할 만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 하여 '창(밀) 터진 물'이라고 불린다. 화구호는 그 바깥둘레가 1천5백m나 된다.

설문대할망의 전설과 함께 물장오리는 다양한 역사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우선 화구호 주변에는 주초석(지름 약 60cm) 10여개가 일정간격으로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초석은 석축을 쌓아 만든 평탄지형(20m×13m)에서 발견된다. 한눈에도 건물지였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성격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헌상에는 물장오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폐건물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물장오리에는 또 제주4·3 당시 무장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산전(사진)도 남아있다. 오름 하단부 계곡 인근에서 확인되는 이덕구산전은 장방형 구조 등으로 쌓았던 석축흔적이 뚜렷하다. 이처럼 이곳은 일제강점기와 4·3시기에 이르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역사무대인 것이다. 물장오리는 또한 등정로가 마구 파헤쳐지면서 깊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지역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자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지역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물장오리 일대에 흩어진 역사현장에 대한 종합조사 역시 시급하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